



□ 해외주요뉴스 □

유럽 인공위성 컨소시엄 「유텔샷」-새 衛星 5개 제작

유럽의 44개국 인공위성 컨소시엄인 「유텔샷」은 지난 7월 10일 러시아의 한 컨소시엄에서 제작하는 것을 포함, 5개의 새로운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계획을 발표했다.

「유텔샷」은 이날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새로운 인공위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8억에퀴(미화 11억달러)에 이르며 5개의 위성은 모두 오는 98년부터 발사된다고 밝혔다.

「유텔샷」의 이같은 인공위성 추가제작 및 발사는 급성장하는 원거리 통신 서비스 및 텔레비전 직접서비스 시장에서 이 컨소시엄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해줄 뿐만아니라 서비스지역도 아시아중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유텔샷」이 현재까지 띄운 11개의 위성중 10개는 유럽 아리안발사대를, 11번째 것은 미국의 한 아틀라스 로켓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의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입찰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異기종간 표준통신망 구축-국제 컨소시엄 구축

일본과 미국의 24개 통신 및 전자회사들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업체가 서로 다른 통신기기들간의 통신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셀류테이션 컨소시엄」으로 명명된 이 컨소시엄은 다른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 전화 사진복사기 같은 기기들간의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세계표준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후지쯔, 마쓰시타 電器, 리코 및 미국의

휴렛 팩커드社 등이 포함된 이 컨소시엄은 이 사업의 표준 초안을 마련, 앞으로 유럽 및 기타국가들과 이를 협의할 예정이다.

美휴즈, 13억弗규모 위성제작 受注

미국 제너럴 모터스(GM)社의 계열사인 휴즈 전자는 오는 99년까지 전세계적인 셀방식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12개의 통신위성을 제작하는 총 13억달러의 계약을 따냈다고 지난 7월 20일 발표했다.

이 계약은 인마셋(국제 海事 위성기구)이 미국의 콤포넨트와 獨逸의 도이치 텔레콤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26억달러 규모의 통신위성網 구축계획의 일부이다.

스티브 도프만 휴즈 통신·우주社 회장은 휴즈社가 이 계획에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방안을 인마셋의 관계자들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휴즈는 이미 오는 98년까지 北美대륙에서 이동전화 및 자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억 5천만 달러상당의 위성사업에 투자를 해놓고 있다.

스웨덴 에릭슨, 中에 이통장비 供給

스웨덴의 통신업체인 에릭슨社는 중국 산동성 郵電局과 GSM이동전화시스템 공급에 관한 1억2천1백만크로나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회사측이 최근 밝혔다.

에릭슨측은 8천만명의 인구 규모로 중국에서 7번째 큰 省인 산동성과 처음으로 체결한 이번 계약에 따라 산동성의 3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이동전화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美 디스커버리號, 22일 무사 귀환

美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號에 타고 있던 5명의 승무원들이 위성운반 및 과학실험 등 임무를 모두 마치고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한국시간 저녁 9시) 케네디 우주센터에 무사히 귀환했다.

승무원들은 지난 9일동안 美항공우주국(NASA) 통신위성을 설치했으며 각종 과학 및 기술관련 실험을 실시했다.

中 통신위성 폭발은 돌풍 때문

지난 1월 26일 중국 四川省 西場 소재 인공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된 지 50초만에 폭발했던 중국 상업통신위성 「엡스타-2號」는 돌풍에 의해 위성이 파손되면서 폭발한 것이라고 중국의 長征 로켓 프로그램 추진사인 국영 長城공업공사가 지난 7월 26일 발표했다.

長城공업공사는 이날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위성 제작사인 미국 휴즈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社와 함께 6개월 동안 사고원인을 조사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長城공업공사와 휴즈社は 공동성명에서 당시 중국언론이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처럼 엡스타號가 위성 장치불량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兩社가 앞으로도 위성사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위성통신사업 「스타워즈」 불붙었다.

전세계를 연결하는 위성이동통신사업이 시작도 되기전에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紙는 최근 미국의 항공우주업체인 TRW가 美특허국으로부터 현재 추진중인 「오디세이」사업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TRW의 특허는 지구상공 1만킬로미터의 위성 궤도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TRW는 또 조만간 「오디세이」의 성능향상을 위해 투자금액을 대폭 증액시키는 한편 신규투자자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TRW의 특허취득에 커다란 자극을 받은 인마켓(국제해사기구)은 13억달러규모의 12개 위성제작사업을 휴즈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社에 발주했다.

또 66개의 저궤도 위성으로 구성되는 이리듬사업을 추진중인 모토롤러社は 기책정된 사업예산에 3억달러를 더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위성이동통신업체간에 물밑경쟁이 치열한 것은 이 사업이 미래의 유망사업이라는 점 외에도 기술이 매우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들어 시장을 선점하지 못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현재 추진중인 2~3개의 프로젝트외에 나머지는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위성통신사업은 지구저궤도에 위성을 수십개 띄워 세계 어디에서나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0개 정도이다.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0개 정도이다.

AT&T, 사우디에 통신설비 투자

미국 AT&T 인터내셔널社は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 4억달러 규모의 조건부 통신설비 투자를 약속한 데 이어 앞으로 그보다 규모가 큰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AT&T는 영업개발 담당 보브 와이어트 전무는 『사우디는 훌륭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AT&T는 당초 계획보다 더 큰 투자를 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AT&T는 지난해 유럽과 일본, 캐나다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40억달러 규모의 사우디 전화망 확장계약을 따냈으며 금년 7월에도 사우디 정부는 8억달러에 달하는 이동전화 30만 회선 계약을 AT&T에 맡겼다.

입찰과정에서 AT&T 등 경쟁사들은 수주사가 계약액의 일정비율을 현지 합작선이 참여하는 첨단기술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조건부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인텔셋 708號 11월 발사

인텔셋은 인텔셋Ⅶ, 인텔셋Ⅷ 시리즈의 9개 위성(인텔셋 707~709와 인텔셋 801~806)추가발사 일정을 발표했다.

이들 9개 위성이 발사되면 최근 발사돼 가동중인 6개의 인텔셋Ⅶ 위성과 함께 고객 서비스가 보다 강화된다.

이들 9개 위성은 앞으로 2년간에 걸쳐 발사될 예정이며 인텔셋 708호가 오는 11월 가장 먼저 발사된다. 또 5개 위성이 내년, 나머지 3개는 97년에 발사된다.

인텔셋Ⅶ,Ⅷ 시리즈 위성은 컴퓨터와 통신, 방송기술이 통합되는 추세를 반영해 이에 맞도록 설계된 최신 위성이다.

星港 PCCA, 日통신사업 신청

싱가포르의 PCCA社는 일본 우정성에 장거리 통신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PCCA社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외국과 연결시켜주는 인공위성 통신회선을 임대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EU업체, 中 여객기사업 “눈독”

중국과의 제트여객기 합작생산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유럽-美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6개 유럽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대표단이 이달중 중국을 방문, 1백석짜리 신형 제트 여객기 합작제조를 위한 제휴가능성을 타진한다.

영국 옵서버紙는 지난 8월 6일 영국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 PLC(BA)와 독일 다임러-벤츠 AG,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시알,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네덜란드업체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이번 중국방문을 계기로 美보잉사를 제치고 이 프로젝트의 중국측 제휴선으로 최종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목시계형 화상전화기 和필립스, 개발추진

네덜란드의 필립스社가 손목시계형 화상전화

기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뉴욕 타임스」紙는 최근 필립스社가 반도체 부문을 주축으로 손목에 차는 통신기기인 손목시계형 화상전화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필립스에 따르면 오는 2002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중인 이 제품에는 소형 카메라, 라디오, TV 외에도 컴퓨터를 내장해 인터넷의 월드 와이드 웹(WWW)과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스사는 또 이 화상전화기에 음성인식 기능도 부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필립스의 한 관계자는 『필립스는 기존 기술을 최대한 응용해 명실상부한 휴대용 제품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록히드社, 통신위성 발사 실패

미국 록히드 마틴社가 개발한 신형 상업용 로켓이 지난 8월 15일 발사직후 궤도를 벗어난 비행을 하다가 2분 30초만에 지상통제소에 의해 파괴됐다.

모두 1천 6백만달러의 제작경비가 들어간 이 로켓은 추진체이상으로 3주동안 발사가 지연돼 오다 이날 지구궤도에 올려놓을 민간통신위성을 싣고 발사됐다.

반덴버그공군기지 대변인 팀 호프먼 중사는 로켓이 조각조각 부서져 바다에 떨어졌으나 부상이나 발사기지의 물적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美소니 픽처스, 印에 위성채널 新設

소니 산하의 美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SPE)가 싱가포르의 미디어관련회사 아고스 커뮤니케이션즈 엔터프라이즈와 제휴, 인도의 위성방송에 새 채널을 개설한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SPE는 현지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자사소유의 영화·TV프로그램 등을 힌두語로 바꿔 금년중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또 내년중 1천시간의 프로그램을 힌두語로 제작할 계획이다.